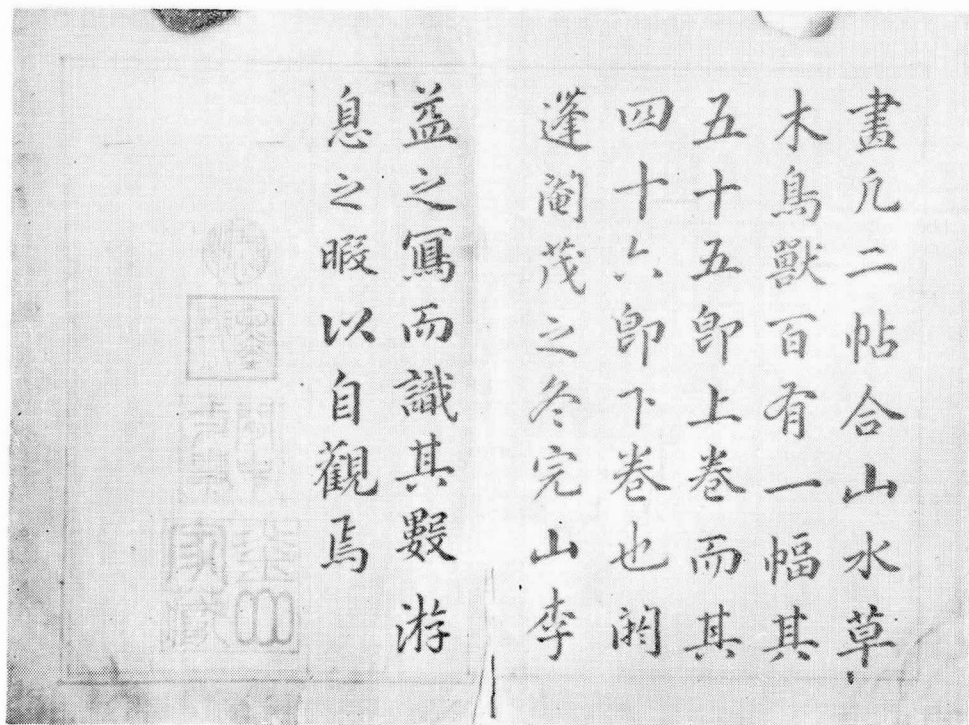


# 逸名畫人 李益之

崔 淳 雨

一、

槐山 柳海益氏 家藏에 李益之라는 畫人의 翎毛帖 한 권이 있다. 縱三三·四種 幅二三·三種의 작은 畫冊으로서 亭本에 그린 것이 二二幅 紙本에 그린 것이 二九幅 合五十一幅으로 成冊되어 있고 卷首에 李益之 自跋 二面이 들어 있다. 이 跋記에 「畫凡二帖合山水草木鳥獸百有一幅 其五十五即上卷 其四十六即下卷也 關蓬陶茂之冬 完山 李益之寫以識其數 游息之暇以自觀焉」이라 한 것으로 보아 甲戌年 겨울(關蓬陶茂之冬)에 李益之가 自寫한 것을 二冊으로 成帖한 것이며 이 畫冊은 그 중 上卷에 該當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現在는 前記한대로 五十一幅이 헤아려짐으로 이것은 아마도 幅數와 面數의 計算錯誤에서 오는 差異라고 짐작된다. 이 五十一幅中에는 山水가 十四幅 翎毛가 二十二幅 動物七幅 魚蟹四幅 墨竹四幅이 包含되어 있다. 이 逸名의 畫人李益之란 人物에 대해서 자세히 밝힐 資料는 없으나 權燮의 自著筆寫本 玉所集卷之十에 「李益之名夏英以崔相門人爲縣監筆下出翎毛逼真雖未及趙梅窓之耘亦復勝於元牙山夢翼」이라는 대목이 있어서 李益之의 畫冊自跋과 아울러 그의 出身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즉 益之는 그의 字였으며 이름은 夏英이었고 完山李氏로서 崔相의 門人이었으며 縣監을 지낸 士人으로서 翎毛를 잘 그렸으나 梅窓 趙之耘(一六三七?)에는 미치지 못했고 元牙山 夢翼의 그림은 넘어서는 畫格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元牙山 夢翼이라는 사람은 孝宗 때의 右議政 灘叟元斗杓(一五九三—一六四四)



圖一. 李益之 畫冊自題 三三,四×二三,三cm

의 孫이였으며 아마도 忠淸道 牙山고을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翎毛에 能했던 十八世紀의 逸名畫人으로 짐작된다. 이 玉所集의 著者 權燮은 肅宗朝의 參判 權尙明의 子로서 吏曹判書 權尙游(一六五六~一七二四)에게 出系했었고 宋時烈에 이어 畿湖學派를 이끌던 肅宗朝의 名臣 寒水齋 權尙夏(一六四一~一七二二)는 그의 伯父였다. 이 權燮은 當時 鄭敦(一六七六~一七五九)과도 交友가 있었던 모양으로 玉所集 鄭謙齋山水條에 我友云云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謙齋世代之 사람으로 짐작될 生卒年을 가릴만한 資料는 아직 없다.

以上の 資料들을 檢討해 보면 李益之의 翎毛帖自跋에 나오는 成帖의 紀年인 甲戌이 英祖 三十年(一七五四)으로 推定할 수밖에 없다. 즉 玉所集의 著者 權燮의 季父 權尙游의 在世가 一六五六~一七二四였고 또 權燮과 交友가 있던 鄭謙齋의 在世가 一六七六~一七五九였으며 權燮이 李益之의 翎毛와 比較한 趙之耘의 在世가 一六三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李益之라는 逸名畫人의 活動年代는 十八世紀 中期로 보아야 될 것 같다.

二、

李益之의 畫格에 대해서는 玉所集의 著者가 이미 指適했드시 翎毛畫는 비록 趙之耘에는 미치지 못하나 차못 逼真했다든 솜씨를 이 翎毛帖이 보여 주고 있다. 즉 그의 翎毛連作(圖二·七)들이 보여 주듯이 趙滄江父子의 翎毛法을 이은 자취를 漚漚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李益之가 山水도 즐겨서 그렸지만 翎毛가 得意였었음은 이 畫冊 上卷五十一幅中에 二十二幅이나 翎毛가 찾아하고 있음으로 보아서도 능히 짐작이 된다. 玉所集에 紹介된 畫人은 鄭敦、洪受疇、李益之의 三人 뿐이었던 것으로 보아 權燮의 眼目도 헤아려지는 듯 싶고 따라서 그 當代의 畫家들 中에서 李益之의 詩書畫는 凡常하지 않았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도 있다.

山水畫(圖八·九)는 水墨으로 이루어진 平遠山水로서 墨色의 濃淡을



圖三. 翎毛 一六,七×二三,三cm



圖二. 翎毛 一六,七×二三,三cm



圖五. 宿鳥 三三,四×二三,三cm



圖四. 翎毛 三三,四×二三,三cm



圖七. 翎毛 三三,四×二三,三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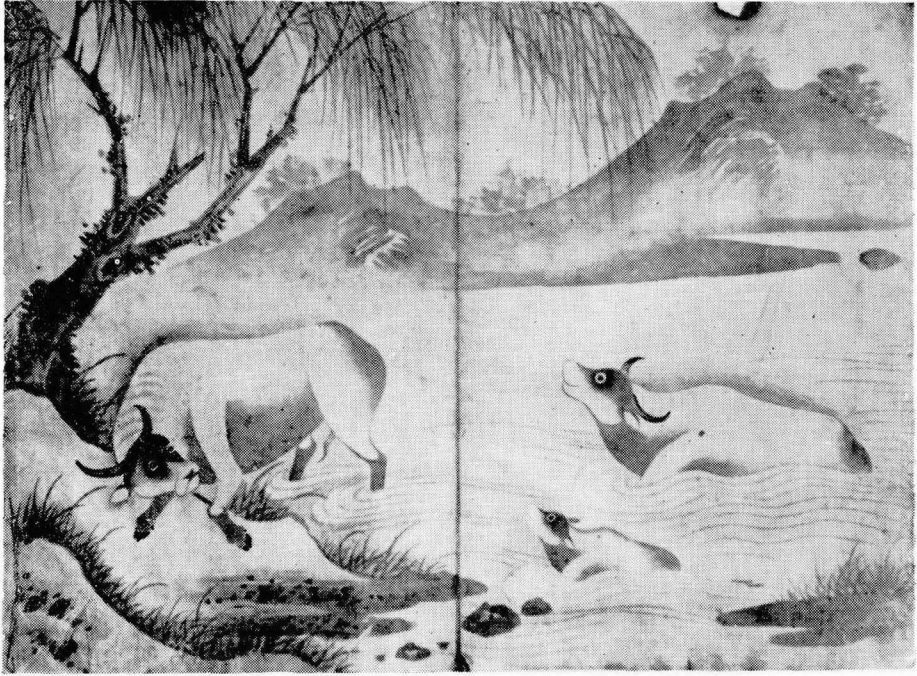
圖六. 翎毛 一三,四×一二cm



圖八. 山水 三八×二〇.九cm



圖九. 山水 三八×二〇.九cm



圖一〇. 浴牛 三三,四×二三,三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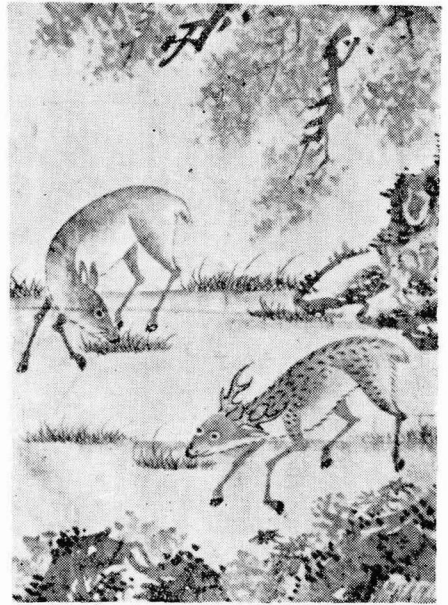
자못 能熟하게 가려 썼으며 樹林、特히 松林의 描寫는 謙齋法을 連想시켜 주는 點도 없지 않다. 遠山連峯의 山勢와 混點法 또한 謙齋法에서도 例를 볼 수 있지만 아마도 芥子園畫傳의 平遠山水法에서 본단 山勢로 판단된다. 그러나 基本的으로는 十七、八世紀 서울 畫壇에서 流行하던 鶴林正父子系列의 技法을 익힌듯이 보인다. 그리고 이 畫冊에 包含된 十四幅의 山水全體로 미루어 본다면 作品의 優劣도 눈에 띄고 또 畫體가 같은 것들이 아님으로 보아 李益之의 山水 畫格은 翎毛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實感시켜 준다.

動物畫中에 浴牛(圖一〇)는 거의 金壇의 牛圖와 흡사해서 그 系譜가 짐작이 될 뿐 더러 매우 能熟한 솜씨를 보여 주었고 사슴 그림(圖一一) 또한 그 무렵 餘技의 文人畫系列의 솜씨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따라서 畫冊의 自跋文에서도 보여 주었드시 書도 매우 端正했음과 더불어 詩書畫가 모두 凡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朝鮮朝中葉의 士人出身 餘技畫人이 지니는 趣向의 한 定型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 玉所集 權燮 自著筆寫本 卷十各項 柳海益氏所藏

(國朝人物考)

(國立中央博物館長)



圖一一. 雙鹿 一八,五×二二cm